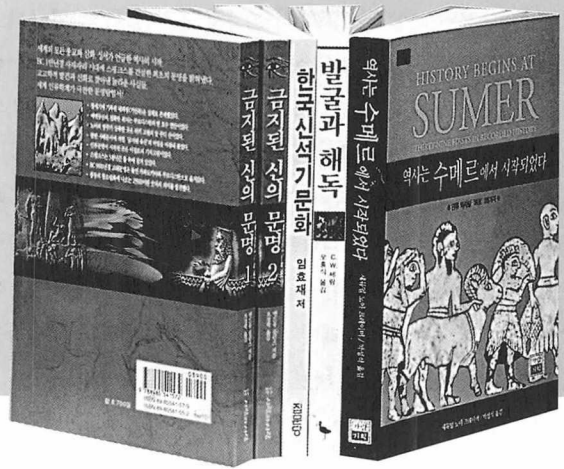


선사문화와 고대문명의 비밀 파헤친 책들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수수께끼 풀이한 책들 쏟아져 나와...
수메르 · 히타이트 문명 등으로 관심 확산

최근 선사문화와 고대문명의 비밀을 파헤친 책들이 서점에 넘쳐나고 있다. 인류의 탄생기에 대한 고고학적 증언부터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히타이트 문명을 발굴한 책들까지 다양하다. 사료의 공백을 넘어 인간의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 책들은 인류의 근원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최근 서점가에 가보면 선사시대와 고대문명의 비밀을 파헤친 책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5백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의 기원을 밝혀주는 책부터 수수께끼로 남아 있던 메소포타미아 · 히타이트 · 마야문명을 재조명한 책들까지 다양하다.

인류의 기원과 고대문명에 대한 책들은 고고학 · 신화학 · 인류학 · 민속학 등의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는 한편, 문헌사료의 공백을 뛰어넘어 인간의 지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레이엄 헨콕의 《신의 지문》(까치)과 크리스티안 자크의 《람세스》(문학동네) 등으로 물꼬를 튼 고대에 대한 독서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로도 보인다.

선사시대 깊이 조망한 개론서들

최근 번역된 미국의 고고학자 브라이언 페이건의 《인류의 선사문화》(이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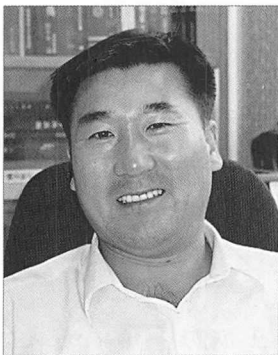
준, 사회평론)는 세계 선사문화 개론서로서, 최신의 고고학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인류의 기원과 초기문명을 해명한다. 페이건은 인류의 나이를 500만년 전으로 상향조정한다. 그 전까지는 고작 10만년 정도로 추정했다. 인류가 농경을 개시한 것도 8500년 전으로 바로잡았다.

한국의 선사문화를 본격 조명한 학술서도 나와 있다. 지식산업사에서 펴낸 《우리 선사문화 I · II》(이용조 외)는 충북대에서 7년 동안 계속된 '우리 고대문화의 이해' 강좌의 결과물로, 구석기 · 중석기 · 신석기 · 청동기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물을 망라했다. I 권은 중부지방의 선사문화를, II 권은 북부지방의 선사문화를 다룬다.

선사시대 가운데 석기시대를 다룬 책들도 눈에 띈다. 《잃어버린 문명》(리처드 러글리, 윤소영, 마루)은 석기시대에도 문명의 모든 요소가 이미 존재했음을 입증한다. 예컨대, 신석기시대에 이미 동양식 러그가 제조됐고,

“전문연구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중서도 없다”

고고학 · 고대사 전문출판사 학연문화사의 권혁재 대표



학연문화사는 국내에서 유일한 고고학 전문출판사다. 1988년 설립돼 지금까지 《고고학으로 본 한국 고대사》(강인구), 《고고학 이론과 방법론》(추영식) 등을 비롯한 단행본 120여종, 《고고학보》(상고사학보) 등의 학회지 10여종을 출간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역사의 근원을 탐구하는 <알타이 고고학 시리즈>를 펴내고 있다. 권혁재 대표(42)를 만나봤다.

— 고고학 전문출판사를 설립한 계기는?

“국학 전문출판사인 경인문화사에 근무하면서 고고학 분야에 관심을 돌리게 됐다. 당시만 해도 고고학 전문학자나 독서인구가 드문 형편이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알타이 고고학> 시리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고고학 발굴에 참가한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학자들이 수집해온 자료들이 아시아의 문화적 기원을 연구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 현재 어떤 책들이 나와 있나?

“지난해부터 매년 한권씩 출간해 앞으로 10권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알타이의 제사유적>(블라지미르 D. 꾸바레프, 이현종 · 강인욱), <고대 알타이의 비밀>(V.I. 몰로딘, 강인욱 · 이현종)이 나와 있고 <알타이 최초의 주민> <알타이의 황금문화> 등이 준비중이다.”

— 대중이 읽을 수 있는 고고학 책을 펴낼 계획은 없는가?

“고고학의 기초자료나 학술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중서도 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좀더 학술서 목록을 충실히 한 후, 일반인을 위한 입문서도 기획하고 싶다.”

치과용 드릴이 이용됐으며, 회계업무도 이뤄졌음을 밝혀낸다. 인류의 문명이 5000년 전에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효재 교수(서울대 고고학과)가 쓴 《한국 신석기문화》(집문당)는 신석기문화의 편년을 재정립하고, 신석기문화의 각 지역별 특징을 시기별로 비교해 한국 신석기문화의 특성을 고찰했다. 임교수는 한국의 신석기시대를 대략 B.C 10000~6000년 사이의 고신석기(古新石器期)와 빗살무늬토기가 성행한 신석기(新石器期)로 구분한다.

숫적으로 압도적인 이집트 문명 관련서

각 문명권별로 고대문명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작업도 활발하다. 특히 이집트 문명에 대한 책들이 압도적이다. 영림카디널에서 <이집트 로지> 시리즈로 《태양을 삼킨 람세스》(우종길), 《먼 나라 여신의 사랑과 분노》(이상 크리스티안 데로슈노블쿠르, 용경식), 《태양의 여인들》(이인철), 《나일 강 위로 흐르는 빛의 도시》(이상 크리스티앙 자크, 우종길) 등 네권이 번역됐다.

《왕들의 계곡—고대 이집트로 들어가는 문》(오토 노이바트, 이규조, 일빛)은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한권으로 정리한 개설서다. 지은이는 고왕국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 피라미드를 꼽고 중왕국 시대에는 신전이, 신왕국 시대에는 왕들의 계곡이 각 시대를 상징한다고 해설한다. 1922년 투탕카멘의 무덤이 열리는 순간을 지켜본 목격자의 생생한 발굴담도 들려준다.

피라미드의 전설과 천문학을 연계시켜 이집트학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오리온 미스터리》(로버트 바우벨·아드리안 길버트, 도 반, 열림원)도 흥미롭다. 기체에 있는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의 중심인 오리온 벨트를 지상에 그대로 배치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 지은이의 핵심 주장이다. 다시 말해 피라미드가 파라오를 저승 세계로 인도해주는 통로였다는 것이다.

최근 출간된 책들 가운데서 가장 이채로운 대목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수메르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새뮤얼 노아 크레이머가 쓴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박성식, 가람기획)가 대표적이다. 인간에 의해 성립된 가장 최초이면서 가장 창조적인 문명이 이룩한 성취를 잘 보여준다.

《구약성서》의 역사적 복원

국내에서 유일한 수메르학자인 조철수 박사가 펴낸 《메소포타미아와 히브리 신화》(길)는 인류 문명의 태동기에 관한 28편의 에세이다. 그는 수메르에서 비롯된 인류 최초의 지적 유산으로 아동교육, 국제 외교문서, 양원제도, 법전, 약 처방전, 농사법, 천문학, 도시지도, 도서 목록, 문법책 등을 꼽고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준다.

고대문명의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구약성서》의 이야기가 결코 신화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들도 나오고 있다. 《금지된 신의 문명》(앤드류 콜린스, 오정학, 사람과사람)은 <에녹서>의 기록이 인류 역사의 한 대목임을 확인한다. 에텐동산은 쿠르디스탄의 반 호수 연안

“전문학자들이 역사 대중화에 앞장서야 한다”

고려대 서양사학과 김경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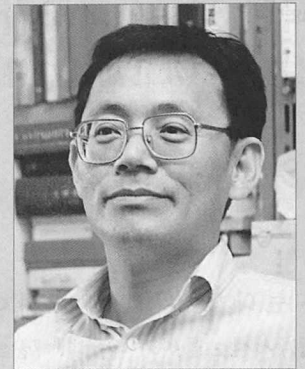
서양 고대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경현 교수(47)는 고대문명에 대한 독서열기를 90년대의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시대적 중앙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80년대와는 달리 90년대 들어 역사분야에서도 흥미와 오락에 대한 대중의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낮설고 신비한 것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역사 교양서가 메워줬습니다. 고대시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사료의 공백이 많기 때문에 상상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만큼 대중적인 글쓰기가 가능했다는 얘깁니다.”

또 하나, 서양에서 고고학이나 고대사 연구에 대한 성과물이 축적되면서 이를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는 점도 꼽는다. 80년대에 고대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이 국내에 돌아오면서 이를 소개하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출판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

“전문학자들이 대중과 대화할 수 있는 글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비록 전문가가 봤을 때 부실한 내용의 책이라고 할지라도 고대문명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다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교수는 인문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전문학자들이 대중을 의식하는 글쓰기에 좀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언한다. 그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에 세워진 공동체며, 노아의 방주가 상륙한 곳은 터키 고원의 알 주디 산이라고 실증한다.

《문명의 창세기》(데이비드 롤, 김석희, 해냄)는 《구약성서》의 <창세기>가 역사상 실제 사건을 묘사했음을 밝혀낸다. ‘이집트 동부사막 탐사대’를 이끈 영국의 고고학자인 지은이는 수메르 문명이 에텐에서 추방된 아담의 자손들이 남긴 자취며 이 흔적을 따라가면 바벨탑의 정체를 만날 수 있고 노아의 홍수는 길가메시의 홍수였다고 주장한다.

히타이트 문명에 대한 발견 이야기를 담은 책도 선보였다. 《발굴과 해독》(C.W. 세람, 오홍식, 푸른역사)은 히타이트어의 해독과정이나 히타이트 역사에서 주요 사건의 연대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흥미롭게 기록한다. 그밖에 마야문명을 복원한 《마야문명》(존 S. 헨더슨, 이남규, 기린원),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를 추적한 <알타이 고고학 시리즈>(학연문화사) 등도 나와 있다.

어느 고고학자의 지적처럼, 선사시대는 인류가 지상에 내려온 시간의 95% 이상을 넘지만 역사시대는 고작 5%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시대가 인류 이야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선사시대와 고대문명을 다룬 책들을 보면, 인류의 선사시대가 역사시대의 ‘서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시대가 선사시대의 다채롭고 파란 많은 ‘후기’임을 보여준다. - 박천홍 기자